

수공예품과 제품디자인의 인식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Craft and Product Design

박혜원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 학과

Park, Hae-Won

Dept. of Industrial Design, Honam Univ

*keywords : Craft, Product, Design, Perception

1. 서론

공예의 발생 초기에는 미술 전반에 관련된 넓은 의미로 이해되었지만, 지금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까지 용기의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은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물질적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급자족의 가내 수공업에 밀려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속에서 공예는 전통적인 수공예와는 또다른 성격의 제품디자인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전자가 인간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기계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공예품이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기계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 가능해짐에 따라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제품은 정확성과 가능성, 그리고 대량생산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공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제고시켰다는 성과에는 불구하고 너무 획일적이어서 인간미가 없고 예술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공예품에 대한 향수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공예의 질을 높이려는 '공예부흥운동'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21세기를 바라보는 고도의 산업사회에서도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규범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기계생산품을 필요로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공예의 개성적이고 직관적인 미적 특성을 숭상하는 상반된 경향이 존재한다. 그래서 초기 산업사회에서 부터 지금에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수공예의 직관적인 특성을 기계제품에 접목시킴으로써 기계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일부 소수층만을 위한 귀족공예로 타락하지 않도록 생활속에 공예의 질을 보편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에와서도 미적가치를 위주로 하는 예술성과 실용적 가치를 위주로 하는 상업성의 양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현대공예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보다 공예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이 필요로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공예문화를 구성하는 실체로서 수공예와 제품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실증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디자인의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하여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공예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연구는 수공예품과 제품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위해 이론적인 문헌조사와 실증적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는 기존의 문헌을 참조하여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조사의 대상은 광주에 자리한 4개 대학교의 산업디자인 전공 학생들로 하였으며, 각 학교 담당교수들의 협조를 얻어 96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25매가 회수되어 이 중에서 분석에 부적합한 8매를 제외한 총 217매가 분석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구체적인 성격은 다음 <표1>에 제시된다.

< 표 1 > 표 본 의 성 격

성 별	전 공			전 체
남/여	시 각	공 예	제 품	
57/160	58	128	31	217

2) 이론적 배경 : 공예의 발달과정

공예가 과연 무엇인가를 개념정의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것을 공예라고 지칭해 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공예품이 만들어져 나온 것을 살펴보면, 18세기 중반이전에 생산된 대부분의 상품들은 어느정도까지는 공예적인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전통적인 공예품과 기계제품간의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산업혁명은 공예와 산업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갈 등을 야기하였는바, 한편으로는 균일감과 양을 요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과 질을 요구하였다. 이때에는 이러한 상반되는 요구를 적절히 절충하지 못함으로써 공예는 각기 서로 다른 특질을 가진 두가지로 분리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현대에 와서는 비록 모호하기는 하지만 기계에 필적할 만한 수공적인 제품, 즉 현대에 와서는 소위 제 3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수공제품 가운데서 공예를 발견할 수 있으며, 현대 공예가들에 의한 개별적

예술작품으로서 공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예란 단어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예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이로인해 때로는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3) 조사결과의 분석

수공예품과 제품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먼저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나타내주는 항목 11가지를 선정한후, 선정된 11가지 항목을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구성하여 이들을 양극단으로 하는 5점 평정척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반응은 1점에서 5점 까지로 나타나며, 3점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의미하게 된다.

다음에는 수공예품과 제품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기위해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다. 수공예품과 제품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대중성과 가격경쟁성, 품위, 유행성, 독특성, 편리성등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중에서 제품디자인은 대중성을 비롯한 가격경쟁성과 유행성, 편리성등에서 수공예품 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공예품은 품위와 독특성에서 제품디자인을 앞서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상되어 왔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수공예품에 대한 인식이 제품디자인에 대한 인식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간 공업화의 추진과 수출우선정책등으로 인해 제품디자인의 발전은 괄목할만한 것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수공예품의 발달이 정체되어 왔던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수공예품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의 저조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가격경쟁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대량생산 위주의 저가품보다 소량생산 위주의 고급품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수공예품의 개발육성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줄 뿐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전통의 의미를 느끼게 하고 민족적 긍지와 정체감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수공예품

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수공예품에 대한 낮은 인식은 우려할 만한 점이라 하겠다.

3.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그동안 공예와 산업디자인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산업화이후 실리적 필요에 따라 제품디자인에 치중한 교육과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제품디자인 분야는 점차 가시적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공예 분야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욱 침체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으며, 그에 대한 인식도 자연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공예품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실용성이나 기능성 그자체 보다도 선물상품으로서 선호되고 있으며, 외국과의 경쟁력면에서 유리하다. 수공예품은 이러한 상품으로서의 가치이외에도 전통의 계승을 통한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감형성에도 중요하므로 결코 소홀히 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교훈을 생각하고 제품디자인과의 상호보완적인 조화를 통해 수공예품과 제품디자인 모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림1> 수공품과 제품디자인의 인식비교

